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14년 8월 11일

8월은 전쟁과 헌법의 '평화주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때이다. 8월 6일, 9일, 15일 전후에는 많은 신문·텔레비전에서 전쟁이나 평화에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특집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를 계기로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때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생각할 수 있다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년에 한번 이 시기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전혀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이 시기에 다시금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이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이를 '반파시즘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듯 하다(특히 '진보파' 혹은 '좌파'에서는?). 즉 일본·독일·이탈리아라는 파시즘·군국주의의 '악의 추축국'에 대해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을 비롯한 세계의 국가들이 침략 반대·반파시즘 연합을 구축하여 싸운 전쟁이라는 견해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의 연합국 측은 '정의의 우리 편'이 되고, 일본·독일·이탈리아의 파시즘 진영은 '나쁜 놈'이 된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는 '나쁜 놈'인 일본이 '정의의 우리 편'에게 철저히 패배하여, '이제 앞으로 일체 나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참회'한 것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정의의 우리 편'이 '나쁜 놈'을 해치우기 위해 싸운 전

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세기말 이후 미국·독일·일본 등의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가 대두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유럽 열강(영국·프랑스·스페인·러시아 등)에 의한 제국주의적 세계 분할의 세력 균형이 깨져 발발했다. 요컨대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 쟁탈전이 영국·프랑스·스페인·러시아와 같은 대국간의 세력균형의 형태로 그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미국·독일·일본이라는 신흥 제국주의 국가들이 비집고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났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는 이긴 쪽 특히 영국·미국·프랑스의 세 대국에 의한 제국주의적 지배의 재편이었다. 이에 불만을 갖게 된 패전국 독일, 그리고 제1차 대전에서는 영국·미국 쪽에 달라붙었지만, 중국에서의 권익을 둘러싸고 영국·미국 등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일본 등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식민지 재분할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이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와 시장의 쟁탈전, 말하자면 ‘야쿠자’의 세력권 다툼과 같은 것이다.

위의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는 ‘야쿠자’의 세계에서 발을 빼겠다고 하는 선언이다.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의 기초에 있는 철학은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표현한 전문의 한 문장에 나타나 있다. 구미 제국주의 열강에 끼여 식민지 쟁탈전을 전개해 온 군사대국 일본이 “전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쟁을 포기하며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의미는 대단히 크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땅에 제멋대로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 끝에 강제로 자신이 차지해 버린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공포와 결핍에 빠뜨리고, 그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짓밟아 온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 대국의 하나였던 일본이 온 세계 모든 사람의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하고,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의 도구였던 전쟁을 일체 하지 않는다, 전력을 일체 갖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와의 결별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세력권 다툼을 계속하는 ‘야쿠자’의 세계에서 이제는 빠져 나와 ‘건실한’ 세계에서 살아가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일본만이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일본만이 ‘나쁜’고 사과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자학사관’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권력의 중심부에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야쿠자’의 발상이다. ‘야쿠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일본만이 나쁜 것은 아니다. 구미 열강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도’ 나쁜 짓을 해 온 것에는 틀림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도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런 ‘나쁜 놈들’ 가운데 솔선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쁜 놈들’에 의한 쟁탈전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결코 ‘자학’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자랑해야 할 일인 것이다. 가장 먼저 나쁜 짓을 나쁜 짓이라고 알아차리고 같은 짓은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과 아직도 나쁜 짓을 나쁜 짓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어느 쪽이 명예로울까?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는 이러한 일본 국민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에서 일본은 ‘야쿠자’의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한 채로 왔다. ‘야쿠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두목’의 비호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야쿠자’로서 힘을 키워 나가야만 한다. 이를 뻔뻔스럽게 내세워 온 것이 아베(安倍) 정권이다. 이는 헌법에 제시된 일본 국민의 ‘명예’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야쿠자’의 세계에 폭 빠지려 하는 것이다. 격조 높게 ‘건실한 사람의 세계에서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다시 야쿠자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지 않은가? 일본을 그런 한심한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다.